

오늘의 소련, 그 변화의 의미를 켠다

변모하는 소련사회의 이해를 돕는 책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부쩍 세계인의 이목을 끌기 시작한 소련은 얼마전 성사된 한·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식수교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우리에게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으로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 이같은 관심의 열기를 반영하듯 서점가에도 변모하는 소련사회의 이해를 돕는 책들이 다투어 선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에 소련의 '오늘'을 분석한 책을 선정, 간략한 해제와 함께 소개한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의미를 규명한 책들은 본지 제56호(90년2월20일자)에 게재된 「소련이해의 新思考 이끈다」에서 다루어졌기에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오늘의 소련사회(바질 게르블레 지음 / 최재현 옮김)

프랑스의 권위있는 슬라브 연구자가 쓴, 소비에트사회에 관한 중립적이고 냉정한 사회학적 연구서.

이 책을 구성하는 11개의 장에는 현대소비에트사회의 모습을 알게 해주는 풍부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영토·인구·민족적 전통·도시·농촌·가족·기업 등 사회의 기본골격에 대한 미시분석에서 사회관계와 정치제도에 대한 거시사회적 분석까지, 그리고 나아가 소련사회가 걸어갈 미래에 대한 종합적 전망까지 제시되어 있다.

소련사회를 다른 모든 인간사회와 마찬가지로 나날이 건설되고 있는 활기 넘치는 사회로 바라본 저자는, 따라서 소련사회에 대한 연구가 과거의 구태의연한 재고목록을 그리는데 그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작과비평사 / A5신 / 456면 / 5000원

■소련은 지금(모리모토 다다오 지음 / 김상형 옮김)

사회주의 시장개혁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는 일본의 경제학자가 페레스트로이카의 경제개혁문제를 집중 분석한 책.

주로 신문·잡지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기사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면서 저자 나름의 관점에서 비판적 분석을 가한 것이 특징.

총 4부5장으로 구성, 제1부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정의와 개념, 경제정책의 원인을 살펴보고 있으며, 제2부에서는 기간산업을 대상으로 소련의 낭비경제체질과 생산성 저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3부에서는 소련경제의 국제화문제를 취약한 수출구조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제4부에서는 경제개혁 방해요인인 관료주의의 구체적 양상과 사회각층의 부정적 반응을 소개하고 있다.

예문 / A5신 / 406면 / 4500원

■변하는 소련, 변하지 않는 소련(하카마다 시게키 엮음 / 전경훈 옮김)

페레스트로이카로 부쩍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소련의 현실에 대해 일본의 각 분야별 소련전문가 13인이 공동집필한 책. 테마의 한정성과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배제하여 소련에 대한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인식을 도모했다.

소련인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고르바초프의 개혁으로 정치와 경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민족문제는 왜 일어나는가, 우주개발 등에 비해 하이테크나 공업기술의 뒤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리고 군축이나 안전보장에 대한 소련의 생각은 어떠한가 등 소련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부록으로 '1989년 소련·동구관계 주요일지' '알타체제하 동서관계의 행보' '소련·동구 남북한 國勢비교표'를 실고 있다.

현대경영 / A5신 / 352면 / 5000원

■蘇聯史(제프리 호스킹 지음 / 김영석 옮김)

1917년 볼셰비키혁명 이후 1985년 고르바초프가 집권하기까지 인류최초의 공산주의 정부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러시아의 삶이 어떻게 소비에트인민의 삶으로 변화되었는지 추적하고 있는 책.

기존의 소련사 기술에 일반적이던 정치·외교에 치중하는 경향을 벗어나 사건중심이 아닌 '흐름' 중심으로 씌어졌는데, 광범위한 각종 자료를 활용하면서 소련내의 각 민족과 다양한 계층의 생활양식이 소비에트체제로 흡수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오늘의 소련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소련사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배려한 이 책을 통해 '러시아'가 아닌 '소련'의 참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홍성사 / A5신 / 514면 / 7000원



한·소 정상회담 직후 마련된 대형서점의 소련관련도서 코너.

■소련의 이해(하카마다 시게키 지음 / 정성환 옮김)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소련의 변화와 그 영향을 25가지 항목으로 분석한 소련이해의 경험론적 평론집. 일본의 소련문제 전문가인 저자가 5년간 소련에 유학하면서 그곳에서 생활한 경험을 토대로 시사적인 문제만이 아닌, 각 시대의 특징을 초월하여 소련사회의 본격적인 측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소련사회에 대한 기존의 통념이나 허상을 근본부터 파헤친 입문서 성격의 제1부 '오해를 푸는 25가지 시각'과 함께, 제2부는 저자와 소련과학아카데미 경제부장 아감베간이 나눈 대담 '소련경제개혁, 제3의 길은 존재하는가' 등을 실었다.

열린책들 / A5신 / 182면 / 2800원

■소련경제사(M. 돕 지음 / 임휘철 옮김)

'철의 장막'안에 갇혀 있는 이방의 세계로만 여겨왔던 소련의 경제사를 다루고 있는 책.

10월혁명 이후 사회주의경제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소유, 경제계획화, 경제계산제와 물질적 유인의 메카니즘 등의 확립과정을 중심으로 소비에트 사회가 어떠한 역사과정을 경험하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형성해 왔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소련사회의 개방과 개혁으로 수교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련사회의 내부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지침서가 될 듯.

형성사 / A5신 / 546면 / 7800원

■시베리아 개발사(李徹 지음)

외국어대 노어과 교수로 재직중인 저자가 광대한 영토와 무궁한 자원으로 연상되는 '시베리아'개발의 역사를 오늘의 시베리아의 모습과 함께 보여줌으로써 시베리아 개발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서.

이 책에서는 현재의 시베리아가 어떻게 소련의 영토가 되었고, 그 개발의 진전과 부존자원의 현황은 어떠한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정치체제의 변화로 인해 식민

지 진출의 대상에서 경제개발의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시베리아의 변모를 추적하고 있다. '제정러시아 초기의 시베리아 진출' '시베리아 개발과정에 따른 통치제도' '계획경제하의 시베리아 개발' 등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한·소 수교에 대한 희망과 함께 시베리아 개발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주목을 끌만한 책이다.

민음사 / A5신 / 290면 / 5000원

■ **소련총람** (북방연구회 엮음)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소련은 달나라보다도 더 먼거리에 있는 생소한 땅이었다"는 엮은이의 말대로 우리사회가 '크레믈린'의 세계에 너무 무지했던 것이 사실.

이 책은 관계개선의 발빠른 속도에 비해 친절하게 크레믈린의 베일을 벗겨주는 안내자가 없는 가운데 그 역할을 자임한 책. 입국 절차에 대한 안내로부터 정치조직의 개요, 그리고 소련의 자원개발현황을 밝히고 있는데 부록으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헌법'과 '소련의 주요대외관계 안보조약'을 실고 있다.

소련 택시기사들은 거스름돈을 팁으로 여기는 '못된 습성'이 있다는 것도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법정출판사 / A5신 / 318면 / 5000원

■ **혁명 70년의 소련사회** (V. 보이노비치 지음 / 임훈순 옮김)

1980년 독일로 망명한 소련의 희극작가인 저자가 변혁기에 놓인 소련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소련인들의 실생활과 문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책.

모두 3부로 나누어진 이 책은 소련인들의 일상생활, 소련에서의 문학과 작가들, 소련의 불합리한 생활을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폭로·비판하고 있다.

특히 우둔하지만 권력때문에 산업의 지도자가 된 공산당원, 방학동안 스위스로 휴가온 외교관 자녀들의 이야기속에서 고골리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한 희극작가다운 뛰어난 '유머'가 돋보인다. 레닌의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나」와 동명의 저술명을 사용하면서도 전혀 다른 내용을 다룬 저자의 재치가 '읽는 즐거움'을 한층 돋구어 주기도 한다.

지식산업사 / A5신 / 316면 / 3500원

■ **크레믈린의 새바람** (페르난도 메제티 지음 / 김태용 옮김)

이태리 태생의 국제적 저널리스트인 저자가 브레즈네프 사망에서부터 고르바초프의 정권 획득에 이르는 극적인 5년간의 현지체험을 보고서 형식으로 구성한 책.

원제는 「고르바초프 전환의 줄거리」로, 당시 소련에 체재해 있던 많은 대사급 외교관들과 소련국내의 정치가, 학자, 작가 등의 대내외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

고르바초프의 권력장악 과정에서 발생한 미묘한 정치적 문제들과 정계의 재편성 과정을 현장감 있게 묘사하고 있으며, 그 이후의 미국, 중국, 유럽, 아시아에 대한 외교전략을 비롯한 신경제정책(NEP)의 부흥 등 페레스트로이카의 구체적 실현상황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평민사 / A5신 / 280면 / 3800원

■ **告白** (보리스 옐친 지음 / 조영환 옮김)

소련 급진개혁파의 기수 보리스 옐친의 자전적 수기.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구사고'에 머물고 있는 소련공산당에 분노하면서 고르바초프를 비롯한 고위층들의 작태를 통박, 소련사회의 진면목을 드러냄으로써 서구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책으로 알려져 있다.

옐친은 85년 모스크바시당 제1서기, 86년 정치국 후보위원을 지낸 인물로,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만족하지 않고 몇배 더 혁신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한편 정치국 위원들의 특권행위를 비판하다가 87년 가을 공직에서 해임되었다.

이 책에는 크레믈린의 부패내막과 고르바초프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함께 옐친 자신의 개인적 투쟁사가 함께 실려있어 흥미를 끄는데, "어정쩡한 방법밖에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고르바초프를 공박하면서 보다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늘땅 / A5신 / 272면 / 3800원

■ **소련의 세계전략** (아르바토프, 올트만스 공저 / 이수인 옮김)

미국과 서방에 대한 소련의 대외정책을 밝힌 책. 네덜란드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올트만스와 '소련외교의 설계자'로 불리는 아르바토프의 150항의 서면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꾸며졌는데 아르바토프는 소련의 미국연구소 소장을 거쳐 현재 최고회의대의원으로 있는

이 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가진 인물.

이 책은 소련이 추구하는 세계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사상적 기초와 목적, 미국의 냉전정책의 역사적 배경·동기·목적에 대한 소련측의 견해 등을 담고 있는데, 그는 핵전쟁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현대의 최대과제이며 이를 위한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불가피성을 역설. 미소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실천문학사 / A5신 / 306면 / 3200원

■ **러시아의 역사** (니콜라이 라자노프스키 지음 / 김현택 옮김)

「러시아의 역사」(A History of Russia)의 그 후반부로 우리나라에는 처음 소개되는 러시아 通史.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 역사학자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러시아의 과거를 전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키예프러시아, 몽고지배하의 러시아, 제정러시아, 소비에트 러시아 등으로 대별되는 러시아 역사는 각 시대를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차원에서 해석했다. 특히 역사해석을 둘러싼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다루면서 쟁점에 대해서는 대조되는 견해를 비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러시아역사에 대한 독자 나름의 비판적 이해를 가능케 한 점이 이 책의 특징.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소련을 보는 우리의 시각에 새지평을 열어준다.

까지 / A5신 / 374면 / 4500원



• 정은하 엮음/값 3,000원

칼릴 지브란과 메리 해스켈이 들려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

향기로운 영혼의 소유자 칼릴 지브란과 그 영혼을 눈뜨게 한 메리 해스켈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에 이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삶의 진실과 진정한 사랑에 대하여 속삭이는 젊은 영혼의 울림들—(사랑은 자유하는 삶입니다) 느끼십시오! 그 가슴 벅찬 감동을 분명 또다시 누리실 수 있습니다.



110-220 서울시 종로구 팔판동 150번지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1

팩시밀리 739-2129

- 칼릴 지브란과 메리 해스켈의 영혼의 속삭임
-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정은하 엮음/값 2,000원
- 위대한 정신 칼릴 지브란과의 만남
- 모래·물거품 정은하 엮음/값 2,000원
- 칼릴 지브란의 산문시
- 고평하여라 나의 마음이어 나희덕 엮음/값 2,000원
- 칼릴 지브란 우회집
- 어느 광인의 이야기 권국성 엮음/값 3,000원

늘 | 깨 | 어 | 있 | 는 | 젊 | 은 | 목 | 소 | 리 | 로